

LG산전, 전력기기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주력분야인 전력기기 제품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과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LG산전은 동남아, 중동 등 주력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력기기 전제품을 독자 개발한 신모델로 교체, 제품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며 이 지역 12개국의 에이전트 15명을 초청, 자사 청주연수원에서 제품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해외 에이전트 초청 이벤트는 저압기기류(저압차단기, 개폐기, 기중차단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현지에서 에이전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공장견학 및 세미나를 통해 LG와 LG제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오는 7월에도 동남아, 중

남미 지역의 해외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2차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독일 하노버(Hannover)에서 열린 「Hannover Messe 2000」 전시회에도 전력기기 제품들을 대거 출품,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산전은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중국지역에 소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거래선 확보 등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산전은 향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은 물론, 해외 전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지에 적합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KD파워, 수배전반 시장서 두각

대용량 수배전반시장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변전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용량 수배전반시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의 첨단화 및 고급화, 디자인이 차별화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과 인터넷을 이용한 제품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올 상반기부터 전압 전류 역률등 전력요소 43가지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전기안전관리시설물을 무인원방감시할 수 있는 대용량 '지능형 변전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일본 산요계열 반도체 생산공장인 동경 실리콘회사에

설비용량 5,400kVA급인 수변전설비를 자사의 지능형변전실로 교체이후 평균 30% 이상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였다.

또 경남 양산시 범어정수장에 G급의 안전시스템과 자동운전기능을 갖춘 설비용량의 1,500kVA인 지능형변전실을 제작, 납품해 발주처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분당에 신축중인 인터넷 통신센터의 설비용량 7,750kVA인 수변전설비를 지능형변전실로 계약했으며 첨단시스템의 대용량 수배전반설비를 요구하는 2,000kVA급 이상의 20여

개 프로젝트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박기주 사장은 "최근들어 대용량 수배전반 고객들의 성향이 점차 고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고급화된 제품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으며 일본의 산요본사를 비롯한 국내외 수요자들로부터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능형변전실은 올 2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용자지원 대상 설비로 선정돼 설비 교체시 에너지에서 총 설비교체 소요자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산전, 고객밀착 마케팅 호응

LG산전이 사업부서별로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 서비스 및 기술자문등 고객밀착마케팅을 실시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력기기사업부는 4월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물드변압기, 배전반, 고압차단기등 전력기기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 순회점검 및 기술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력기기사업부의 무상 순회점검 서비스로 50여 업체에 설치된 1,000대 가량의 제품이 순회점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업부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대구, 창원, 경인지역을 순회하며 PLC 인버

터 등 신제품 소개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구사업부는 지난 3월초부터 전국 농협의 신청을 받아 예취기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곳의 농협에서 실시한 무상점검 서비스에서 농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예취기 무상 서비스는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된다.

LG산전은 외국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산업용 전기 전자 분야 국내 시장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 고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국내시장 수위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대한전선, 이라크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은 최근 현대종합상사

(대표 : 정재관)를 통해 이라크 전력청이 발주한



132kV 초고압전력케이블 200km 입찰에서 유럽 등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1,5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전선측은 이번 수주와 관련, 지난 '90년대 초반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한국업체에 발주한 인프라부문 프로젝트 중 최초의 초대형급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또 수주한 케이블을 올해 안으로 모두 제작, 전량을 이라크 전력청에 인도할 계획이어서 초고압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내다

봤다.

현대종합상사는 이와 함께 이번을 계기로 최근 들어 이라크가 그동안 중단했던 석유 전력 통신 등 핵심사업 부문의 개보수와 인프라 복구 사업용 설비의 구매사업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측은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라크 시장에 대한 영업확대와 신규 영업 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장기 출장자 파견에 이어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조사단도 현지로 파견키로 했다.

LG전선, 照射전선 '세계 1위'

갈수록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전선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스포츠라이트를 받고 있는 품목은 LG전선(대표: 권문구 <http://www.lgcable.co.kr>)의 「UL3239」 조사전선이다. 이 품목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면서 세계 1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올해 세계 조사전선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2,6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전선은 50% 규모인 1,300만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말이면 세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TV 10대 중 6대에 LG전선의 마크가 찍힌 조사전선이 장착되게 된다.

조사전선은 TV 브라운관·전자레인지 등의 고전압회로 및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고속의 전

자선을 전선내 절연체에 투사, 절연체의 분자구조를 선상구조에서 망상구조로 변경시킨 제품이다. TV 모니터 및 전자레인지 내에서 발생하는 30kV 이상의 고전압을 견뎌낼 정도로 내열성·내응력성 및 물리적 강도가 탁월해야 제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품질도 품질이지만 생산설비 가격도 만만치 않아 이 전선을 생산하는 업체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로 평가받을 정도다. 이런 시장에서 LG전선이 일본 스미토모·다이쇼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제치고 절반 이상을 독식하는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LG전선은 「자년해에 비해 무려 75% 늘어난 700만달러 가량의 물량을 수출쪽에서 잡고 있다」면서 「30억원을 투입, 조사전선 설비를 증설해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희성전선, 광통신·전자정보 부품 사업 강화

희성전선(대표 : 양창규)은 올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광통신부문과 전자정보통신 부품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희성전선은 올 회계년도 주총에서 이같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인터넷등 정보화 관련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총에서는 또 지난해 어려운 국내외 산업환경에

도 불구하고, 매출 2,467억원 달성과 전년대비 16% 증가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광케이블은 같은 기간동안 106%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순이익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증대와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힘입어 '98년도 대비 22배가 늘어난 67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미미전자·조일조명공업,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미미전자(주), 조일조명공업(주)가 조명분야 조달청의 중소우수제품에 선정됐다.

조달청은 80개 업체 94개 제품을 2000년 1차 중소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제품인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우수 신기술제품에 대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조일조명공업(주)의 승하강식 조명탑은 알루미늄레일을 채용, 상하부로 이동시 흔들림이 없고 안

전하게 작동한다. 구동장치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전원차단시스템을 적용했다.

미미전자(주)의 고효율에너지절약형 심플타입의 내진행거식매입슬림형 형광등기구는 기존 등기구에 비해 조명전력을 20% 이상 절감했으며 높이를 110mm에서 40mm로 대폭 축소했다. C-채널절단이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차광각을 줄여 눈부심을 감소시켰고 등기구의 소형화로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또 내진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크로스티이씨, 에너지 절약형 UPS 개발

크로스티이씨(대표 : 권용주)가 기존 제품에 비해 운영 비용을 30%이상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무정전 전원장치를 개발했다.

지난 4년 동안 12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모델명 스위치 UPS 시리즈)은 1.6~5.2kVA급 4개 기종으로 전원장에서 컴퓨터등 부하에 즉시 전원을 공급하는 zero transfer tim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품은 AVR 보상회로가 내장되어 사용 전원이 10%이상 벗어나는 저전압이나 고전압에서 Auto Boost 및 Auto Trim 회로가 스스로 작동하여 배터리의 사용을 억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며 상용 전원이 이상이 생겼을 때만 축전지의 전원이 출력을 공급하는 지능형 UPS다.

또 절연 모듈, 전자모듈, 배터리 팩 등 모듈형태로 돼 있어 각종 전기적 장애에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작동중일 때에도 무분별 진단이 가

능한 것은 물론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

이와 함께 전면에 액정 표시장치를 설치, 아이콘을 통해 부하량이나 배터리량 등 UPS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크로스티이씨는 이 제품을 서버, 허브, 라우터 등 전산통신장비용 랙마운트 타입으로 개발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크로스티이씨는 동남아 시장의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기반으로 구미 선진국 시장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수출 주력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Comdex Spring에 참여할 예정이다.

Comdex Spring은 세계 유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이번에 크로스티이씨는 자사의 iUPS, Power RAID 등 기존의 유명 브랜드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 강관철탑 시장 진출

한국중공업(사장 : 윤영석)은 최근 송전용 대형 강관철탑의 하중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일반 앵글철탑에 이어 강관철탑 시장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 4월 4일 밝혔다. 한중은 이와 관련, 최근 충남 조치원 철탑시험장에서 강관철탑 31곳에 강철선을 연결한 후 수직수평 방향으로 약 30톤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철탑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하중 시험을 단한차례만에 성공했었다.

이번 하중 시험에 성공한 강관철탑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강관으로 제작된 철구조물로 중량 94톤, 높이 100m, 최대지름 66cm의 대구경 파이프를 제작돼 기존 앵

글 철탑에 비해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신시흥 변전소까지 64km 구간에 설치할 예정인 영흥 T/L 송전용 철탑 30기를 오는 2001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공급할 예정이다.

한중은 이번 강관철탑 하중 시험 성공으로 해외 송배전 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기인시스템, 디지털 모터 보호제어장치 CE 인증 추진

기인시스템(대표 : 이기원)의 디지털 모터 보호 제어장치(DMCC)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소형모터 3상 부하 전원의 직접 제어가 가능하다. 무접점 소자를 내장하고 있어 소형(15A 이하) 모터 제어의 경우 별도의 외부 MC(마그네틱 접촉기)가 불필요하다.

원격 감시 및 운전기능으로 PLC 통신용 접점을 기본 제공하고 RS-485 통신에 의한 원격감시 및 운전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보호기능, 운전조작 기능, 표시기능을 통합한 일체형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DMCC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경비절감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제품의 경우 CT, MC, 열동형 계전기, 릴레이류, 버튼류, 표시장치 등의 결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 낭비 및 공기 지연이 문제점으로 대두 됐다.

그러나 DMCC는 추가 결선이 필요하지 않고 NFB와 모터 사이에 직접 연결해 설치함으로써 인건비를 기존 제품의 1/5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역시 1/10 정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및 인건비 절감에 사용시간을 기존 제품의 1~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경제성이 뛰어나다.

공간 역시 기존 MCC반 보다 최고 100% 이상 실장해 최고 2배 정도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 MCC반 한 면에는 최고 8개, 평균 6개의 MCC를 설치할 수 있지만 DMCC는 한 면당 최저 10개에서 최고 12개까지 설치가 가능해 전후면 사용시 한 면에 2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정확성도 뛰어나다. 5~10%에 이르는 기존 제품의 오차율을 1.0급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시스템 이상시 아날로그 타입의 계기와 달리 디지털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고 기기 이상시 교체도 쉬워 사후처리도 완벽하다. 여기에 가격도 40만원인 기존 제품의 절반수준인 10~20만원으로 싸다.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이번 EM 인증 뿐만이 아니다.

ISO 9001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98년에는 특허출원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소의 성능확인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CE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기인시스템의 DMCC 개발은 보다 나은 성능의 제품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95년부터 '97년 2월까지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

장치(MPR) 개발을 완료한 후 '97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의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센터(DMCC)를, '98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DMCC의 기능·용량별로 다양한 모델 개발을 마쳤다.

그리고 '98년 5월부터 시작한 소프트 스타트 기동제어 및 모터보호 일체형 디지털 모터 컨트롤 장치 개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나은 기능을 가진 DMCC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광림특장차, 국산 유압식크레인 北에 납품

광림특장차(주)(대표: 정민)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 유압식크레인(제품명 KS-1256 폴드)을 북한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국내 유압장비분야의 선두 생산업체로 성장해온 광림은 현대트럭(5톤)에 직진식 크레인을 장착시켜 북한 장전항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크레인 생산공장이 전무한 상태로 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사용하다 노후화된 크레인을 수입, 군용차량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다.

광림은 앞으로 장전항 개발공사 및 금강산 레저타운 개발계획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트럭용 크레인을 비롯해 전기공사분야 특장차, 구난용 소방차, 각종 청소차, 견인차를 특별 제작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광림은 KSA 9001, ISO 9001 인증을 받은 유압식크레인의 뛰어난 품질과 성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측과의 기술협력, A/S 합작정비소 설립 등 폭넓은 기술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